

✓ 책을 미리 읽은 전문가가 말합니다

+

스마트폰에 앱이 있다면 AI에는 MCP가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앱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한 것처럼, MCP는 AI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고 활용 가능성을 크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AI를 활용할 때 MCP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해질 겁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MCP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AI 활용법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단순히 텍스트 기반의 대화를 넘어서 실제 업무 환경과 연결되고, 다양한 도구들과 간편하게 통합되는 AI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MCP는 AI가 단순한 질의응답 도구에서 벗어나 진정한 업무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런 혁신적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MCP는 새로운 기술이고, 특히 한국어로 된 체계적인 학습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MCP의 잠재력을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이 책은 클로드의 기본 사용법부터 시작하여, MCP의 개념과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기초적인 MCP 활용 방법은 물론,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MCP를 응용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예제들을 통해 독자들이 AI+MCP의 진정한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변화의 포문을 열어 독자들이 미래 AI 생태계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오히찬, 『이게 되네? 챗GPT 미친 활용법 71제』 저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인공지능 관련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약간의 혼란과 불안함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골든래빗은 이런 현대인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편리한 서비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돋는 다양한 지침서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 또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습으로 시작하며, 직접 따라 하다보면 MCP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엑셀 활용 기능이었습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연어만으로 데이터 구성과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복사, 붙여넣기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으므로 AI를 활용해 일상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배해성, 전) 삼성전자 개발자 현) 프리랜서 강사

✓ 이 책은 독자가 미리 읽어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

일단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이렇게 신났던 것이 오랜만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AI가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텍스트만 주고받을 때보다 훨씬 신기합니다. MCP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이 책이 신세계를 보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할 때 MCP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어떻게 MCP를 이용해서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된 AI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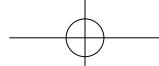
정인채, 반도체 IP 개발자

이 책은 클로드와 MCP의 조합이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실습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기능의 소개와 나열에 그치지 않고, 설치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초반 클로드와 MCP의 개념부터 이후 다양한 활용 예제까지 점점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파일 정리, 이메일 응답, 웹 크롤링, 일정 요약 등 반복적인 업무를 자연어로 지시하고 처리하며, LLM 도구의 실질적 쓰임새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MCP 설치나 외부 API 연동과 같은 장벽에서 난이도를 회피하지 않고, 오류 가능성이나 대안까지 포함해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입니다.

최준성, 연세대

MCP는 개발자가 아닌 제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이 책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클로드에 날개를 달아주는 도구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습니다. 바탕화면을 말 한마디로 정리하는 첫 실습부터 ‘이게 정말 되네?’라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MCP를 사용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설치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장벽을 쉽게 넘게 해주었습니다. 책 제목처럼 “이게 되네?”라는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AI를 내 개인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책을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며 하나씩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조은이, 프리랜서



최근에 챗GPT를 사용하면서 MCP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챗GPT가 못 하던 일에 MCP를 이용하면 비서가 한 명 생긴 것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 같은 비개발자가 혼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각조각 얻는 유튜브 및 블로그 지식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 책이 **미로 속에서 손을 잡고 출구를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금만 방심하면 해매이다 길을 놓쳤겠다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책은 MCP에 관심이 생긴 분들에게 훌륭한 마스터키가 되어줄 겁니다.

박병건, 의사(이비인후과전문의)

미친 활용 예제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클로드가 바탕화면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것을 보고 AI 활용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엑셀 MCP는 사무 보조 직원과 공무원 조직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는 혁신적일 거예요. 앱 만들기 예제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장년인 저는 주로 사진 위주로 책을 보았고, 어려운 부분은 캡쳐해서 클로드에게 직접 물어보며 이해했습니다. MCP를 제대로 쓰려면 클로드 유료 가입이 필수라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월 3만 원 정도면 구직이나 개인 사업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봤을 때 오히려 큰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서강식,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

